

서구 속의 동아시아 남성성  
-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남성정체성 연구 -

East Asian Masculinities in the West:

The representation and the negotiation of masculinity and ethnicity in  
experiences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K

김혜정\*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 남성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남성적 정체성과 민족성을 서구 사회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남성성은 단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경제적 문맥에 따라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사회에서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많은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서구와 동아시아 양쪽에서 모두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다. 동아시아 남성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겪게 되는 상이한 남성성의 경험들은, 남성으로의 정체성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급과 성 정체성, 그리고 민족성 등의 여러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상징적, 물질적 성별 권력구조가 개인의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밝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특히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며, 매체연구를 통해 유럽과 북미의 미디어에서 아시아 남성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해 함께 다루었다.

주요어: 남성성, 동아시아, 민족성, 이미지 재현, 이민

\* 영국 서섹스대학 젠더와 미디어 대학원

## 1. 서론

‘남자다운’, ‘남성적인’ 혹은 ‘여자다운’, ‘여성적인’ 특징들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연 남자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해줄까? 한국에서 흔히 젊은 남성들에게 “군대에 다녀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남자다워지는 게 아니라 남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과의를 거치거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다움의 기준들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시대마다 인기를 끌던 대중매체 속 남성 스타들을 보자. 1970년대는 이소룡과 같이 육체적으로 강하고 용맹하며 반항적인 남성형이 사랑 받았다면, 오늘날에는 소위 ‘꽃미남’이라 불리는, 미소년처럼 섬세하게 생기고 성격도 부드러운 남성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대중매체 속의 스타들은 일반적으로 동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형의 이상화된 모델을 재현하곤 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과거에 비해 남성성에 비해 여성성의 가치가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불변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의 모습 또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간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남성학 연구자들은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특질들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Segal, 1990; Connell, 1995; Messner, 1997). 그뿐만 아니라 남성성은 단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급과 성 정체성, 인종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경제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Segal, 1990). 남성성 연구에서 새로운 이론 틀을 제기한 바 있는 로버트 코넬은 사회에 주도적 힘을 행사하는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

culinity)”의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Connell, 1995). 지배적 남성성은 다양한 남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적 권력질서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지배적 남성성은 여성과 다양한 형태의 비주류 남성들—유색인 남성, 노동계급 남성, 게이 남성 등—에 대한 힘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동시대의 지배적 남성성은 백인 중산층 이성애주의 남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성의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특히 남성 이민자들에게서 극적으로 경험되는데, 이민이라는 경험 자체가 “문화적 충돌의 과정”이기 때문이다(Coleman, 1998: 3). 예를 들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한국 남성은 고국을 떠날 때 일련의 규범화된 남성 정체성과 실천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국과는 다른 새로운 정착지에서 그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사회 규범들에 적응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 남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고국에 비해 강등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고국에서 가지고 온 남성적 인식과 실천을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글은 영국 사회 속에서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남성에 대한 인식들과 미디어 속의 이미지들이 실제 동아시아 남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영국 사회에서 동아시아인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만큼 비가시적일뿐더러, 간혹 대중매체에 등장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는 현자 노인, 불법 이민자, 영어를 못하는 단체 관광객 등 우스꽝스럽고 비하적인 묘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미지 재현은 공동체 구성원의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가령 동시대 서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는 가난한 국가들에서 대량으로 쏟아지는 난민들 또는 불법 이민자들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와 실업,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사회문제를 이민자들의 탓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아시아계 이슬람교도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취급

을 받으며 곳곳에서 사회적 제약과 적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 공동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담론의 형성은 한 집단의 문화를 동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상상하게 만들면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차이와 사회역사적 맥락을 지워버린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사회에서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많은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서구와 동아시아 양쪽에서 모두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남성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남성적 정체성과 민족성을 서구 사회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의 남성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겪게 되는 상이한 남성성의 경험들은, 남성으로의 정체성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급과 성 정체성, 그리고 민족성 등의 여러 층위의 조건들과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또한 상징적, 물질적 성별 권력구조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밝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특히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5년 현재 학생과 일시적 노동인구, 영주권자를 포함해 대략 4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이 영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5). 이는 전체 400만여 명인 영국의 비백인 이민자 가운데서도 극히 소수이다 (Castles and Miller, 2003: 230). 그러나 지난 몇 년 새 한국인의 영국 유입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영국은 현재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한국 이민자를 가진 나라다.

이민자 남성의 일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질적 조사방법 중의 하나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매체연구를 통해 유럽과 북미의 미디어에서 아시아 남성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해 함께 다루었다. 다음에서 남성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한 후에 미디어에서 동아시아 남성이 그려지는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이민자 남성들이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남성성과 민족성을 경험하고 실천하는지 분석하려 한다.

## 2. 남성성과 민족성, 그리고 동아시아 남성의 이미지

### 1) 남성성을 둘러싼 담론들

남성성과 남성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1970년 대부터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출현했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그동안 보편적이라 인식되던 ‘인간(men)’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지적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성별화된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Messner, 1997: 8~10). 피에르 부르디외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과 양성의 위계적 질서에 의해 사회가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한다(Bourdieu, 2001). 즉,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관계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이다(Whitehead, 2002: 59). 린 시걸에 따르면 동시대의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발전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정의 조화’라고 하는 19세기 중산층 가족의 이상화된 이미지는 공적 영역의 남성성과 사적 영역의 여성성이라는 성별 분화에 기초한다(Segal, 1990: 104~107). 그러나 계급과 성 정체성, 인종 등에 따라 여성들 간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페미니즘 안팎으로부터 제기되자, 단일화된 것으로 여겨지던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개념 또한 의문에 놓이게 된다.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성성 연구 역시 백인 이성애주의 남성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Louie, 2003: 1).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종과 성 정체성의 문제를 성의 정치와 연결하는 흑인, 라틴계, 동성애 그룹들에 의해 발전해 나간다(Messner, 1997: 64, 80).

남성성 연구자들은 보편적인 남성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남성성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egal, 1990; Cornwall and Lindisfarne, 1994; Connell, 1995). 로버트 코넬은 역동적인 남성성의 이해를 위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코넬에 따르면 남성성은 위계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계급과 성, 인종 등

다양한 사회구조와 교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백인 남성은 단지 백인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구성된다. …… 비슷하게 노동 계급에서 남성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들의 계급과 성정치학의 고려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Connell, 1995: 75). 특히 그는 “지배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권력구조 하부에 존재하는—여성과 다른 남성들을 포함하는—이들에 대한 문화적 지배를 가리킨다. 지배적 남성성은 부하 남성들과의 공모와 주변부화 된 남성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특권 계급을 합법화한다(Connell, 1995: 77~81). 지배적 남성성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힘을 지닌 백인 이성애 중심 남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Connell, 1995; Segal, 1990; Cornwall and Lindisfarne, 1994), 여성과 동성애 남성, 노동계급 남성 및 인종적 소수자들은 이러한 지배적 사회구조 속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된다.

그러나 다양한 남성성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남성성의 헤게모니 논의는 일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상호 경쟁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서로의 토대를 잠식한다(Cornwall and Lindisfarne, 1994: 12). 실제로 남성성의 의미와 실천은 특정한 문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런던 남부의 남자 청소년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레스 백은 계급과 인종, 스타일에 따라 남성성이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구획되는지를 보여준다(Back, 1994). 백에 따르면 런던 남부에 사는 백인 노동계급 젊은이들은 흑인계와 아시안계 동료 그룹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다음에서 보듯 그 방식은 인종주의적인 동시에 성별적이기도 했다.

백인 노동계급의 젊은 남성들은 흑인에 대해 건장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건부이기는 해도 흑인 젊은이들을 그들의 커뮤니티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베트남 젊은이들은 이방인으로 배척되었다. 흑인 남성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며 과잉성욕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베트남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적인 존재로 묘사

하면서 비남성적인 존재들로 취급하였다(Back, 1994: 181).

비슷한 사례는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된다. 멜보른 지역의 동남아시아 동성애 남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가 게이 커뮤니티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유색인 집단은 타자로 인식되면서 주변부적 위치를 차지했다(Ridge et al., 1999). 게이 매체에서 유색인종이 아예 다루어지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무시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색 남성의 종속적 위치는 더욱 강화되었다(Ridge et al., 1999: 51).

## 2) 동아시아 속의 다양한 남성성들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남성성 연구에서 동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광범위하게 간혹 인종 문제와 관련된 문헌 속에서 서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서구 중심의 동아시아 남성성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 남성성이 고국에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캄 루이가 지적했듯이, “후기식민지 시대의 남성성 연구는 모든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을 식민지 침략자로, 그 외의 나머지는 희생자로 가정한다”(Louie, 2003: 10).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백인 이성애주의가 동시대의 세계 질서 속에서는 최정점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각 국가의 남성들이 자신의 고국에서는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아시아 또는 오리엔탈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남성성을 고정된 것, 역사적으로 단일한 것으로 대상화하는데, 이는 문화적·역사적 차이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사회구조의 고유성과 남성성의 개인적 경험을 지워버린다(Hibbins, 2003: 198). 실상 동아시아 남성성은 특정한 정치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서구의 정형화된 인식에 비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접촉과 경계는 훨씬 더 복잡한 특성을 띤다(Louie, 2003: 11). 예를 들어 전통적인 동아시아 이미지는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를 둔 유교주의 사회로 그려지지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 지난 세기 동안 서로 다른 근대화와 탈식민지 경험을 축적해 왔다. 한국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는 동안 중국은 많은 외국 군대와 맞닥뜨려 패배했다. 반면 일본은 비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한 식민지 지배자였으며,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의 중국에서 여성의 해방과 전통의 철폐가 근대화 과정에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던 때에(Im, 2004: 219),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서구와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경제적 부흥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었다(Taga, 2003: 137). 한국에서는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 집권 등 일련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강력한 단일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자리 잡았다(Moon, 1998, 90~92).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자연히 다르게 형성되었는데, 캄 루이는 중국의 남성성을 “문무(wen-wu: literary-martial)”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문무는 이상적인 유교적 주체로, 정신과 육체의 성취를 통해 사회와 개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루이는 이러한 유교적 모델의 남성성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Louie, 2003: 4~5). 1980년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부흥기에 제창되었던 ‘아시아적 가치’가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한편 『포위된 남성성』이라는 책에서 종 주에핑은 1980년대 지식인 남성의 글쓰기 속에 나타난 중국인의 남성성과 근대화 논의를 탐구한다(Zhong, 2000: 3). 문화대혁명 기간 이후 중국에서는 모순되고 양면적인 모습의 남성성이 출현하는데, 이는 나약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남성적 정체성을 갈구하는 남성의 모습이다(Zhong, 2000: 5~6). 종 주에핑이 ‘변두리 콤플렉스’라고 부른 이러한 징후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별 역할의 재배치에 따른 남성들의 불안을 반영한다(Zhong, 2000: 11).

일본에서는 두 종류의 지배적 남성성이 학계와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었는데, 이는 “제국의 병사”와 “샐러리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Low, 2003). 메이지 시대의 일본 남성은 그들을 황제와 동일시했다. 특히 전쟁 시기에 충성스럽고 두려움 없는 일본 병사가 그들의 황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가미가제의 이미지는 제국주의적 일본 남성성의 전형적인 예이다(Low, 2003: 95). 그러나 일본이 전쟁에서 패함에 따라 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샐러리맨으로의 변모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재건하게 된다. 샐러리맨은 아래와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영리기관에서 봉급을 받는 화이트칼라 남성 피고용인을 지칭하며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에 기초한 월급과 승진체계를 가진다. 가장으로서의 회사는 피고용인에게 관심을 쏟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지런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피고용인을 얻는다(Dasgupta, 2003: 119).

샐러리맨이라는 개념은 특히 197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성행했는데, 남편/생계책임자/아버지로서의 남성과 아내/살림꾼/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이 주도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Dasgupta, 2003: 123).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적 변화와 오랜 기간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성별 구분에 기초한 사회구조와 규범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전통적 모델의 샐러리맨이 급속도로 매력을 상실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 없는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젊은 남성들은 새로운 남성 정체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Taga, 2003: 138).

1990년대까지 남한에서의 지배적 남성성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와 군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Kendall, 2002: 3). 일본 식민주의 통치와 조국의 분단, 한국전쟁, 미군정 시기 등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신성한 의무로서의 ‘국방’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Moon, 1998: 90). 이러한 영향으로 군복무는 젊은 한국 남성들에게 필수적인 통과 의례가 된다. 한편 1970~1980년대의 빠른 경제 성장은 국

민들에게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영달과 통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생존과 평화, 그리고 부의 원천인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정당화되었다(Kendall, 2002: 3). 유교주의가 여전히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일터와 성별 역할,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는 동안(Kim and Finch, 2000: 122), 30여 년간의 군사독재는 고도로 억압적이고 성별화된 위계질서를 통해 전 사회와 개인의 일상을 지배했다(Moon, 1998: 92). 이와 같이 강력한 민족주의와 군사화된 남성주의, 그리고 유교주의의 영향에 따른 성별 구분(Kwon, 2001: 31) 모두가 “초남성화된(hypermasculinized)” 국가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게 된다(Han and Ling, 1998: 54). 그러나 한국 또한 민주화와 경제 위기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남성들 스스로가 기존의 지배적 남성성을 서서히 해체하고 있다.

### 3) 서구인의 눈에 비친 동아시아 남성성

살펴본 것처럼 사회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남성성도 각기 다른 형성 과정을 거친다. 그럼에 불구하고 서구인의 눈에 비친 동아시아 남성성은 규격화된 이미지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남성은 “흑인과 백인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덜 성적이며 더 총명하다”라고 믿어진다(Louie, 2003: 3). 이러한 이미지들은 인종들 간에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들을 기정사실화하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Louie, 2003: 3) 영화와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에 의해 널리 유포된다(Hunt, 2004: 269). “일 중독자, 컴퓨터광, 무술가, 갱단 혹은 동방의 신비한 존재” 등이 모두 서구 매체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아시아 남성의 모습들인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특정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부정적 재현을 통해 사회적 규범이 되는 지배적 남성성으로부터 아시아 남성성을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데 기여한다(Chan, 2000: 371). 그렇다고 아시아 남성성

의 주변부화를 단지 잘못된 재현과 인식의 탓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인종주의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Chan, 2000: 386).

대중매체는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를 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특히 전형적인 남성 장르로 인식되어 온 액션 영화는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기 좋은 장르다(Tasker, 2004: 9). 가장 대중적인 아시아 남성의 모습 역시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쿵푸 전문가 또는 무술가다. 특히 이소룡(Bruce Lee)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연기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 하나로, 1970년대 초반 쿵푸 붐을 일으킬 정도였다. 그의 영화는 유색인 남성도 미국 영화에서 주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 관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몇몇 비평가들은 홍콩의 액션 영화가 서구인의 시선에 의해 거세되고 식민화된 주체를 재남성화하도록 해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archetti, 2001: 150). 그러나 최근 <와호장룡>과 같은 아시아 영화에 대한 유럽과 북미에서의 높은 관심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시아 영화들의 약진을 통해 주변부화되었던 타자를 주체로서 표면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가 하면(Hunt, 2004: 270), 이러한 영화들의 인기가 ‘신(新)리엔탈리즘’의 징후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아름다운 ‘동양적’ 비주얼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이국적 판타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리엔탈에 대한 오랜 서구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지배적/종속적 남성성과 관련한 서구적 관념은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역사적 담론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구 문화의 구성 과정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오리엔트 신화를 밝혀내고 있는데, 오리엔트를 서구적 “자아”의 상대자이자 “타자”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Said, 2003: 3). 오리엔트란 “유럽의 거대하고 풍요로운 식민지이자 문명과 언어의 원천이자, 문화적 경쟁자이자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순환하는 ‘타자’의 이미지이다”(Said, 2003: 1). 제국주의 시절부터 서구는 그 자신을 남성적이지

공격적,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아시아는 여성적, 수동적이고 약하며 복종적이라고 표상되어 왔다(Said 2003; Chan 2000; Yu 2001; Louie 2003). 이렇듯 오리엔탈리즘 속에는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 서양과 동양,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이분법이 존재한다. 영화 <마담 버터플라이(M. butterfly)>는 서구의 남성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국주의 논리 사이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 외교관인 길리마르는 그의 연인인 송 리링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의 연인은 알고 보면 여자로 가장한 중국 남자 스파이다. 송 리링의 독백은 서구 남성 지배자의 판타지를 폭로한다.

서구는 그 자신을 남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커다란 총, 대규모 산업, 그리고 큰 돈과 같이 말이다. 따라서 동양은 여성적이다. 약하고, 섬세하고 가난한……. 오리엔탈은…… 결코 완전히는 남자가 될 수 없다(Hwang, 1989: 83).

다른 한편, 아시아 남성의 재현 방식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반응하며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Lee, 1999: 8~9).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Eng, 2001; Yu, 2001; Lee, 1999; Hibbins, 2003). 여기서 미국 사회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두 가지 상호 모순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아시아계를 인종적 “문제”로 보는가 하면 인종적 “해법”으로 여기기도 한다(Yu, 2001: 7). 한 극단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인종적인 담론이 존재하는데, 이는 “황색 위험(yellow peril)” 신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세기 중반 중국으로부터 남성 노동자들이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했을 때 아시아 남성은 백인 노동자들과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을 지나며 아시아계 미국 남성은 얼굴 없는 적으로 일 반화되기도 했다(Lee, 1999: 11). 1990년대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자, 일본인은 자본주의를 망치는 위협적인 존재로 대중매체에서 폭넓게 묘사되곤 했다. 반면 “모범적인 소수민족(model minority)” 담론이

다른 한 지점을 형성하는데,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성실하고 조용한 성품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인종적 동화의 사례로 언급되곤 한다(Yu, 2001: 7).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주로 흑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인종적 위계구조 속에서 아시아인을 흑인과 백인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흑백 갈등의 완충 역할을 담당케 한다(Marchetti, 2001: 144). 예를 들어 미국의 매체들은 한국계 미국인들을 계급적·인종적 “중개자”로 일컬으며 1992년 LA에서 발생한 한인과 흑인 간의 인종적 갈등과 위기를 합리화하기도 한다(Marchetti, 2001: 143).

#### 4) 영국의 인종 담론과 이민정책

미국에서 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영국에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조차 미미한 실정이다(Castles and Miller, 2003: 157). 영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과시하는 나라이며 심지어 인도 커리를 국민 음식의 하나라고 소개하는 나라다(Hansen, 2000: 4; Raj, 1998: 3). 그러나 실상 영국은 유색이민자를 배척하는 인종주의적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 온 나라이며, 오늘날에도 서방 국가 중에서 엄격한 이민정책을 펴는 나라 중의 하나다(Hansen, 2000, 20). 가장 인상적인 영국 이민의 특징은 바로 영연방국가, 달리 말해 대영제국의 구(舊)식민지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관성이다. 2000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비백인 이민자 인구의 절반가량은 인도와 그 주변 국가(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이며, 뒤이어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13%)과 아프리카(11%)에서 온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3: 230). 따라서 북미지역에서 아시아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폭넓게 지칭하는 것과는 다르게 영국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인도 대륙 출신을 지칭한다(Raj, 1998: 26). 비록 1990년대 들어 동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의 이민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Castles

and Miller, 2003: 158), 영국의 이민정책과 인식은 여전히 식민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 깊이 기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소수인종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수행된 인구조사에서 출신지에 대한 선택 사항은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을 모두 “기타 아시아인” 또는 “중국 또는 기타 인종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사이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다(Census 2001).

영국의 이민정책은 지속적으로 비백인 소수인종을 타자화하는 과정이었다. 식민지 출신의 비백인 영국 국적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하여 영국의 정치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국적의 개념까지 바꾸기도 했다. 초창기 영국 이민자들이었던 아프리카계 캐리비안 남성들은 백인 사회의 강력한 반감과 혐오에 부딪혀 집단 거주지 밖에서는 집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관리와 통제하에 지내야 하기도 했다(Kalra et al., 2005: 54). 랜달 한센은 “흑인을 내쫓고자 하는 욕망”이 영국 이민정책의 역사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적”이라는 개념의 형성 자체가 인종주의적 냄새를 풍긴다고 지적한다(Hansen, 2000: 14). 게다가 이러한 ‘타자’의 구성 과정은 명백히 성별화되어 있다(Yuval-davis, 1997). 이민자 남성에 대해서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반면, 이민자 여성들은 전통적이고 비민주적인 커뮤니티의 희생자로 보거나 이국적인 성애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Kalra et al., 2005: 55).

대량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흑인 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인계 이민자들에게로 옮겨간다. 특히 1990년대에 발생한 인종 소요 사태는 정부와 미디어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아시아 갱』이라는 책에서 클레어 알렉산더는 서로 연관이 없는 작은 규모의 충돌이 어떻게 갱들 간의 전쟁으로 묘사되는지, 또한 이러한 재현 방식이 어떻게 학교와 경찰, 미디어에서 유포되는지 추적한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젊은 아시아 남성들은 반복적으로 범죄자로 이미지화된다(Alexander, 2004: 532). 이러한 담론에서 “폭동”의 원인은 사회 경제적 주변부화로 인한 가난과 실업으로 설명되거나 또는 문명화된 서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수적

문화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Alexander, 2004: 534). 이러한 담론 속에서 단일화된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본질적인 민족성으로 고정된다(Alexander, 2004: 538).

2001년의 9·11 뉴욕 테러 이후에는 특히 이슬람계 아시아인이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 혐오주의 또는 무슬림 극단주의자에 대한 논쟁은 흑인과 아시아인의 뒤를 이어 백인 사회에 인종적 공포를 재생산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Alexander, 2004: 543~544). 코시크 바네르지아는 아시아계 남성들에 대한 병리적 반응을 통해 어떤 식으로 남아시아 또는 중동 아시아 남성에게 “유해한 이방인” 또는 “가짜 시민”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지 연구했다. 가짜 시민은 “다양한 형태의 터번을 두른, 깨끗이 수염을 깎거나 턱수염을 기른, 실업자든 노동자든, 무슬림이든 아니든, 실제로 거기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막연한 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러한 무차별적 의심을 통해 편집증적인 공포와 적대감을 키우게 된다(Banerjee, 2002: 575). 영국 미디어와 학계 양쪽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보다 세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는 ‘아시아 갱들’이라는 용어는 단지 특정 인종집단에 범죄자 또는 위협한 타자라는 낙인을 찍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또한 아시아 남성성을 단일하고 고정된 대상으로 봉합하면서 그 차이를 지우고 만다. 가령 앞선 논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시아인’에 동아시아인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인종적 소수집단으로서 동아시아인은 동시대 영국 문화와 사회 속의 담론과 재현 체계에서 가장 변두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영국에서의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경험

질적조사방법의 하나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2006년 6월과 7월 사이에 영국 런던과 뉴몰든, 브라이튼에 사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을 가진 7명의 한국인 남성 이민자를 만났다. 이들은 21세부터 61세의 학생,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들로, 영국 거주 기간은 5년에서 32년까지 다양하다. 일부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일부는 미혼이었다. 이들 모두는 이성애자로,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실상 영국 이민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나 사업가, 혹은 전문직업을 위해 영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Chae, 1993). 특히 교육은 가장 주요한 관심사로, 학생의 비율이 전체 영국 소재 한인 거주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7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을 통해 본 연구는 어떻게 한국 남성들이 영국에서 그들의 남성성과 민족성을 이해하고, 협상하고 또한 변형해 나갈 것인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동아시아 남성성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이미 얘기했듯, 동아시아 남성성은 동질적인 단위로 이해될 수 없는데, 이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사회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뷰 대상자들 사이에서조차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전략은 다차원적이며,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나이,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반영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미디어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 재현이 어떤 식으로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인종적 위계구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종적 질서 안에서 자리 매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민자들의 일상 속에서 성별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모국과 새로 정착한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찾아나가는지 조사할 것이다.

1) Invisible Men: 편견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영국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국인들의 무관심과 한국에 대한 무지이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국인들 중에 한국을 아는 이가 적다고 얘기한다. 한국인이 받는 대부분의 첫 질문은 바로 “중국인? 일본인?”이다. 한국인이라 대답하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준(21세): 제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가 15살이었는데, 웨일즈 지역의 기숙사 학교에 갔어요. 그 학교에서 동양인은 제가 처음이었는데 다들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요. 질문한다는 게 “너희 냉장고 있냐, 컴퓨터는 아냐” 이런 거였으니까요.

미디어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최(61세)에 따르면 최근의 월드컵 경기 개최 등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과거에는 대부분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 — 1980년대의 폭력적 시위현장, 남북 관계의 긴장과 핵무기, 개고기를 먹는 나라 등 — 이 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한편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간주되었을 때에는 동아시아인에 대한 더 많은 종류의 정형화된 편견들과 만나게 된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동아시아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미지는 “똑똑하다, 깨끗하다, 검소하다, 일중독이다, 시끄럽다, 남들이랑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등 다양했다. 류(25세)는 코미디 쇼를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무시하는 농담들이 난무한다고 밝힌다.

이렇듯 사회로부터의 무관심과 편견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부끄럽고 굴욕적인 경험이며, 이는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깎아내린다. 윤(44세)은 영국에서 자란 그의 아이들조차 한국을 그저 가난하고 개발되지 않은 작은 나라로만 생각한다고 씩씩해 했다. 윤은 또한 목사로서 많은 한국인을 만나는데, 한국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한다. 특히 영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여성들이 사회생활이나 영국 인과의 관계에 보다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윤: 남자는 영국인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여자들은 쉽게 이웃들과 친해지는 것 같은데…… 수다도 떨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면서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질문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윤: 뭐…… 자라고 교육받은 환경 탓도 있을 거고, 생물학적인 남성성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질문자: 남성성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윤: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영역과 자리를 지키고…… 그런 것들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방어적이에요. 국민성도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인이나 라틴계 사람들은 공격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다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에요. 남이 뭘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죠.

이러한 적응에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성 이민자들은 점점 더 영국인들과는 어울리려 하지 않게 된다. 대신 동족인 한국인들과만 관계를 맺고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살며 점점 더 고립적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의기소침한 상황은 남성으로서의 자이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은 영국에 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남성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맴돌다가 이혼까지 당하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다른 인상적인 주제 중의 하나는 한국 남성과 여성의 성적 매력에 대한 다른 해석이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구 여성들에게 아시아

남자들은 전혀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남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아시아 여성은 많은 서양 남자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양은 “구조적으로 멸시와 배척을 생산하는 주류 시스템에 대한 반응으로 아시아 남성들은 스스로 자아 경멸, 자아 부정, 자아 분열의 과정을 내면화한다”라고 했다(Eng, 2001: 21). 황(31세)은 오랜 이민 생활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외부적인 조건을 자기 열등감으로 내면화하면서 남성성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황: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동아시아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적 매력이 좀 쳐지는 것 같아. 솔직히 아시아 남자가 몸도 작고 근육도 적고…… 어쨌든 다른 인종—백인이나 흑인이나 라틴계—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더 약한 게 사실이잖아. 만약 세계가 더 좁아지고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아지면 난 아시아 남성들은 멸종하고 말 것 같아…….

물론 황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20대의 젊은 남성 응답자들은 다른 인종과 한국인 간에 어떤 차이도 없다고 반응한다. 그들은 매력이 단지 개개인의 성격과 상황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조차 다른 인종의 여자친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준의 입을 빌리자면 “백인 여자애를 좋아한 적은 있어도 고백을 하고 어울리기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다. 사실 대다수 응답자들은 다른 인종과의 이성교제에 관심이 없었으며, 본인 또는 자녀도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남성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은 남성성을 육체적인 매력의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성취의 측면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면 성공한 남자, 일 잘하는 남자, 혹은 믿을 수 있고 자신감 있고 도전하는 남자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운 남자였다.

## 2) Middle Men: 인종 지도 속에 자신의 위치 찾기

영국에서 겪게 되는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한국 남성 이민자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 주류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 신참자로서 이미 위계적이고 인종적으로 구조화된 사회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전략들을 동원하게 된다. 자기혐오와 열등감 역시 주류사회의 무시와 거부에 대한 반응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영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역으로 편견과 고정관념도 그만큼 적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접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재해석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동화는 이제 개인의 노력의 문제로 환원된다.

윤: 우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진실되고 훌륭한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면 우리도 영국인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비사교적인지…….

흥미롭게도 많은 응답자들은 영국에 와서 어떠한 인종주의나 차별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인종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서와 같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즉, 그들이 영국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이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도 다 개인이 뭔가 잘못해서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저 밖에 어딘가에 있지만 그들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범적 시민이기 때문이다.

준: 몇몇 사람들은 제 스스로 차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고 다니거나 불편한 행동을 해요. 물론 몇몇 차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보통 중국 사람들을 더럽

다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중국 애들이 에이전시 통해서 그룹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부자고 옷도 잘 입고 깨끗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위의 진술은 한편으로 경제적 성공이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계급은 인종과 상호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조사 대상자 전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가난한 이민자나 난민들에 비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배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계급을 통해 인종적 실재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인종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국 이민자들에게 영국은 백인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상승의 야심은 결국 백색 영국과의 동화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는 인종문제에 대한 주류사회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데이비드 양은 “자기 검열과 훈육의 사회 시스템은 소수자들로 하여금 보다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고, 무의식적인 인종주의의 효과를 내면화하게 만든다”라고 했다(Eng, 2001: 24). 사회구조의 인종적 위계질서를 인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인 중산층 중심의 시각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면서, 한국 남성 이민자들은 자신들을 백인과 유색인의 중간에 위치 짓고자 한다. 이러한 욕망은 특히 결혼에 관한 생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원한다고 대답했으나 만약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고려한다면 백인은 가능하지만 유색인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61세): 만약 자식이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라 결혼한다면 별로 편한 기분은 아니겠지. 하지만 백인, 서양인이라 결혼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랑 맺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많은

부모들이 나이나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배경 같이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고.

앞서 살펴본 다양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한국 남성 이민자들은 실상 다른 어느 인종집단과도 섞이지 못하고 영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한국 남성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욕망이 그들이 동아시아인의 인종적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진실로부터 눈멀게 하지는 않는다.

황(31세): 나는 영국인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여기서 태어나 자라고 여기서 평생 산다고 해도 왜냐, 나는 이등 시민이거든. 비록 내가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 유전적 태생 때문에 나는 1등 시민은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나 2등 시민이야.....

그러나 인종적 위계구조에 대한 인식과 영국 사회에의 적응의 정도는 응답자의 영국 거주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젊은 응답자일수록 피부색을 덜 의식하고 동화에의 어려움도 덜 겪었다.

### 3) Becoming an Alien: 한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벤 앤더슨(Anderson, 1991)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상상적 공동체”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모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자 집단이 모국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걸 볼 때 더 분명해진다. 오랜 기간의 영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터뷰 응답자들은 자신을 한국인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오로지 2세대인 류(25세)만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생각했다. 그에게 한국은 부모의 나라일 뿐이다. 그의 부모가 어른에 대한 공경이니, 예의니, 형식이니 하는 한국

적 가치를 강조하는 걸 그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윤(44세) 또한 그의 자식들을 걸모습은 노랑지만 속은 하얀 ‘바나나’라고 치칭했다. 비록 1세대 이민자들이 자신의 한국 정체성을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들이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게 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은 점점 더 모호하고 복잡한 문제가 된다. 한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존재로 떠난 사회와 정착한 사회 양쪽으로부터 이방인이 되었다는 감정을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호한 민족정체성에 대해 준은 어떤 환경에도 맞출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간으로 해석하다가도 사실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다른 응답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오랜 기간을 외국에서 살다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마련이거든. 그러면 이제 애매한 인간이 되는 거야. 한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1.5세대인 거지.

응답자 중에서도 특히 노년층에게서 고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고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비록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사독재정권이 지배하는 억눌린 사회였다.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억압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구조를 견딜 수 없어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에게는 실패자 또는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떠나올 당시의 한국을 기억하는 그들에게는 고국의 이미지가 좋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Lee, 2005, 160). 한편 이민자들 사이의 부정적 인식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이민을 정당화하고 한국인으로 지내왔던 정체성을 새로운 사회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읽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영국 사회를 비교할 때 이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영국이 수평

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묘사되는 반면 한국은 집단주의 정서와 획일적인 문화를 가진 수직적 사회로 비쳐졌다.

황: 한국에서는 나이가 권력이야. 그걸 무슨 예의니, 어른에 대한 존경인 부르는데, 사실은 위계주의잖아? 상명하달 구조. 젊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든 사람한테 복종해야 하고. 한국 사회는 군대랑 똑같다고 봐. 근데 여기는 나이주의가 없어.

윤: 한국에서는 획일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걸 배워야 하고. 차이니, 개성이니 하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한국인다움, 한국적 가치라는 것 또한 구성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박에게 한국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그가 고국을 떠나던 시절에 고정되어 있어 역동적으로 변하는 고국의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박: 내가 한국을 떠난 게 1974년인데…… 그래서 그 이후의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 어떤 면에서 나는 1974년의 한국인이자…… 그때는 훨씬 더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였고, 유교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 젊은 세대도 달랐고. 예를 들어 어른에 대한 태도 같은 것, 우리는 연장자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야 했거든. 군대같이.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점이 이해하기 힘들어…….

고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 뿐 아니라 영국 내의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냈는데, 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황: 나는 한국 사람들의 남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정말 피곤해. 그런 게 짜증나면서도 솔직히 한국 사람을 만나면 편하거든. 일단 말이 통하니까. 정서도 비슷하고.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은 영국 사회 내의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이민자들은 영국에 자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온, 고등교육을 받고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러나 서투른 영어와 영국 사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비슷한데, 미국의 한국인 이민자들이 주로 가난한 흑인 공동체 지역에서 첫 이민생활을 시작했다면(Min, 1995: 212), 영국에서의 한국 커뮤니티는 폐쇄적이고 자기순환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했다. 한인 레스토랑, 한인 식료품가게, 한인 민박집 등 영국에 정착하는 상당수의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강한 민족적 결속을 가져오는 동시에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 4) Men in Transition: 가사일 하는 남편

한국인들의 영국 이민은 특히 성별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는 유교적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되어진다. 유교주의는 가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리더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남성과 여성의성별 역할의 분리가 강조된다. 한국계 미국인 학자인 민평갑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를 “극단적 형태의 가부장주의”로 묘사한다(Min, 1995).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편은 가족 안에서 생계책임자이자 결정권자

로 간주되며,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완벽한 권위를 행사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이자 아이를 낳아 남편의 가족을 존속시키는 존재다(Min, 1995: 221).

남성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규범으로 몸에 지녔을 가부장적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남성적 정체성은 새로운 성별 관계와 가족 시스템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영국에서의 서로 달라진 여성의 지위로 인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다른 기대가 생기게 되고, 이는 곧 부부 사이의 긴장과 충돌로 연결된다. 윤은 서구 사회가 여성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지만 이는 반대로 남성에게는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윤: 여기서는 여성이 결정을 내릴 때 목소리를 내는 곳이에요. 한국에 서야 여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좋잖아요. 반대로 여기서는 여성의 침묵이 평화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한국 남자들은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부부관계에서의 잦은 불화와 기존의 남성으로서 지니고 있던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남성 이민자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재구성하고 성별 관계를 변형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남성 이민자들의 노력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안일이다. 많은 기혼 응답자들은 이민 후에 요리나 청소 같은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사일의 분담은 좋은 남편이 되는 걸 의미하지 근본적으로 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은 아니다.

한편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성별 구조가 변하기도 한다. 이민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소수자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에 처음부터 적응해야 할뿐더러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민자의 신분은 사회 위계질서의 맨 밑바닥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생활의

고단함은 피할 수 없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필요로 하며, 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민평갑은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의 증가를 든다(Min, 1995, 221~222). 박의 경우도 식당을 경영할 때는 하루 종일 부인과 교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늘어난다는 것이 곧 전통적인 가사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뉴욕에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하는 이민자 부인들이 경제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 때문에 남편들보다 12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보고되기도 했다(Min, 1995: 222).

결과적으로 성별 역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권력관계는 사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비록 남편들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이 가사를 분담한다고는 해도 부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여전히 가족의 리더로서 주요한 경제적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였다. 박의 경우만 봐도 그가 회사 대표로서 사업을 통제하는 동안, 함께 일하던 부인은 나이가 늙어 따라 많은 시간을 집에 머물게 되었다.

#### 4.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한국 이민자 남성들의 경험을 통해 서구적 문맥 속에서 동아시아 남성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경험되는지 살펴보았다. 남성성의 실천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양했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도 다르게 작동했다. 또한 남성성들 간의 권력구조는 계급과 성 정체성, 그리고 민족성 등과 얽히면서 위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서구적 관점에서 백인 중산층 이성애주의 남성이 지배적 남성성으로 구성되는 동안, 동아시아 남성성은 비가시적이며 비남성적인 형태로 정형화되었다.

한편 영국에 사는 한국 남성 이민자와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남성성과 민족성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되고, 재구

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남성성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이론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단초가 될 특징적인 모습들을 묘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인에 대한 무관심과 재현매체 속에 나타난 부정적인 아시아인의 이미지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이 새로운 남성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지인의 무관심 속에서 자아정체감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적응을 하기보다는 한국인끼리의 폐쇄적 집단 속에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인은 성적으로 열등하거나 백인 여성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식의 자격지심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아시아 남성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더 열등하다는 식의 인종적 열등감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둘째,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반응은 복잡하고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성격을 띠었다. 한편으로는 백인 중산층으로 표상되는 주류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데, 이를 위해 다른 소수 민족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고 싶어 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은 자신이 주류사회에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결국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인종적 위치를 애매하게 백인과 유색인종 중간 어딘가에 위치 짓고 싶어 했다.

셋째,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한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닌 상태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소속감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동시에 영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동시적인 욕망이 결 혼관에 투영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성별 역할의 변화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많은 한국인 남성들이 성별 관계와 가족 체계가 고국에 있을 때와 달라졌다고 답변했는데, 한국 사회를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묘사하는 반면, 영국은 보다 평등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별 관계에서의 변화는 표면적이고, 심층적이고 물질적 성의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남성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동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ppendix. Table of Sampling

Inter- viewee	Social status	Age	Period of migration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Interview date
Hwang	Student	30	10	Single	Brighton	04/06/2006
Yeon	Pastor	44	13 (previously lived in China)	Married (with one son and one daughter)	Kingston	13/06/2006
Joon	Student	21	5	Single	Brighton	18/06/2006
Kang	Student	27	11	Single	Brighton	18/06/2006 (e-mail interview)
Park	Retailer	61	32	Married (with two sons)	New Malden	19/06/2006
Choi	Trader	61	5 (lived abroad over 30 years)	Married (with two daughters and one son)	New Malden	04/07/2006
Ryu	Student	25	25 (second generation)	Single	London	15/07/2006 (e-mail interview)

❖ Abstract

East Asian Masculinities in the West:

The representation and the negotiation of masculinity and ethnicity in experiences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K

Kim, Hye-Jung,

The aim of the dissertation is to explore how East Asian male immigrants negotiate their masculine identity and ethnicity in the West.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n male migrants in the United Kingdom. The practices of masculinities differ in specific socio-economic contexts. Moreover, the power structure of masculinities is hierarchically constructed interplaying with class, sexuality and ethnicity. However, as masculinity study has been initiated from a Western perspective, there has been less attention on East Asian masculinities.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t experiences of East Asian masculinities in and out of th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ymbolic and material power structure of gender influence on the everyday lives of individuals and how gender, class and ethnicity interplay with each other. In undertaking the research, semi-structur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Part of this investigation looked at how Asian masculinity is represented in the media, and the impact such representations may have on immigrant experience and identity.

Keywords: masculinity, East Asia, ethnicity, media representation, migration

## 참고문헌

- Alexander, C. E. 2004. "Imagining the Asian Gang: ethnicity, masculinity and youth after 'the riots'." in *Critical Social Policy*, Vol. 24 No. 4, pp. 526~549.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 London & New York: Verso.
- Back, L. 1994. "The 'White Negro' Revisited: Race and Masculinities in South London." in A. Cornwall and N. Lindisfarne(eds.). *Dislocating Masculinity: Comparative Ethnograph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nerjea, K. 2002. "The Tyranny of the Binary: race, nation and the logic of failing liberalisms." i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5, No. 4 pp. 572~590.
- Bourdieu, P. 2001. *Masculine Domination*. R. Nice(trans.). Cambridge & Oxford: Polity Press.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 New York: Palgrave.
- Chae, W. B. 2003. "the history of Korean migrants in the UK." in *Korean Weekly*, [http://www.koweekly.co.uk/pkc/zboard.php?id=seri3&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http://www.koweekly.co.uk/pkc/zboard.php?id=seri3&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 (accessed 9 May, 2006).
- Chan, J. W. 2000. "Bruce Lee's Fictional Models of Masculinity." in *Men and Masculinities*, Vol. 2, No. 4, pp. 371~387.
- Coleman, D. 1998. *Masculine Migrations: Reading the Postcolonial Male in 'New Canadian' Narratives*. Toronto, Buffalo &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onnell, R. W. 1995. *Masculinities*. Cambridge & Oxford: Polity Press.
- Cornwall, A. and L. Lindisfarne. 1994. "Dislocating Masculinity: Gender, Power and Anthropology." in *Dislocating Masculinity: Comparative Ethnographies*(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Dasgupta, R. 2003. "Creating Corporate Warriors: the 'salaryman' and masculinity in Japan." in K. Louie and M. Low(eds.). *Asian Masculinities: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anhood in China and Jap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ng, D. L. 2001.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Espiritu, Y. L. 1997. *Asian American Women and Men*. Thousand Oaks, London & New Delhi: Sage.
- Han, J. W. and L. H. M. Ling. 1998.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No. 42, pp. 53~78.
- Hansen, R. 2000.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Post-War Britain: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a multicultural na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bbins, R. 2003. "Male Gender Identities among Chinese Male Migrants." in K. Louie and M. Low(eds.). *Asian Masculinities: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anhood in China and Jap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unt, L. 2004. "The Hong Kong/Hollywood Connection; Stardom and spectacle in transnational action cinema." in Y. Tasker(ed.). *Action and Adventure Cinema*.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wang, D. H. 1989. *M. Butterfly: with an afterword by the playwright*. New York: Plume.
- Im, W. K. 2004. "Anti-traditionalist Narrative of Nation and Gender in China." in *Theory of Women*, Vol. 11, pp. 208~236.
- Kalra, V. S., R. Kaur and J. Hutnyk. 2005. *Diaspora & Hybridity*. London,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 Kendall, L. 2002. *Under construction: the gendering of modernity, class, and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im, S. K. and J. Finch. 2002. "Living with Rhetoric, Living against Rhetoric: Korean Families and the IMF Economic Crisis." in *Korean Studies*, Vol. 26, No. 1, pp. 120~139.
- Kwon, I. S. 2001. "A Feminist Exploration of Military Conscription: The Gendering Of The Connections Between Nationalism, Militarism And Citizenship In South Korea." in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Vol. 3, No. 1, pp. 26~54.
- Lee, H. K. 2005. "The Korean Diaspora and Its Impact on Korea's Development." i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Vol. 14, No. 1-2, pp. 149~168.
- Lee, R. G. 1999. *Oriental: Asian Americans in Popular Cul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Louie, K. 2003. "Chinese, Japanese and Global masculine identities." in K. Louie and M. Low(eds.). *Asian Masculinities: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anhood in China and Jap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ow, M. 2003. "The emperor's sons go to war: competing masculinities in modern Japan." in K. Louie and M. Low(eds.). *Asian Masculinities: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anhood in China and Jap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rchetti, G. 2001. "Jackie Chan and the black connection." in M. Tinkcom and A. Villarejo(eds.). *Keyframes: Popular Cinema and Cultural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essner, M. A. 1997. *Politics of Masculinities: Men in Movements*. Thousand Oaks, London & New Delhi: Sage.
- Min, P. G. 1995. "Korean American." in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Thousand Oaks, London & New Delhi: Sag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Republic of Korea. 2005.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Diaspora by Region in 2005", [http://www.okf.or.kr/data/abode/Status\\_EU.jsp](http://www.okf.or.kr/data/abode/Status_EU.jsp) (accessed 6 June, 2006).
- Moon, S. S. 1998. "Gender, Militarization, and Universal Male Conscription in South Korea." in L.A. Lorentzen and J. Turpin(eds.). *The Women and War Reader*.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 Great Britain. 2004. *Census 2001 - Definitions, laid before Parliament pursuant to Section 4(1) Census Act 1920*. London: TSO.
- Raj, D. S. 1998. *Where Are You From?: Middle-Class Migrants in the Modern World*.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idge, D., A. Hee and V. Minichiello. 1999. "'Asian' Men on the Scene: Challenges to 'Gay Communities'" in *Journal of Homosexuality*, Vol. 36, No. 3/4, pp. 43~68.
- Said, E. W. 2003. *Orientalism* (new ed., originally 1978). London: Penguin.
- Segal, L. 1990. *Slow Motion: Changing Masculinities Changing Men*. London: Virgo.
- Taga, F. 2003. "Rethinking Male Socialization: Life Histories of Japanese Male Youth." in K. Louie and M. Low(eds.). *Asian Masculinities: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anhood in China and Jap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asker, Y. 2004. *Action and Adventure Cinema*. London & New York: Routledge.
- Yu, H. 2001. *Thinking Orientals: Migration, Contact, and Exoticism in Moder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uval-Davis, N. 1997. *Gender & Nation*. London,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 Whitehead, S. M. 2002. *Men and masculinities: key themes and new directions*. Cambridge, Oxford & Malden: Polity Press.
- Zhong, X. 2000. *Masculinity besieged?: Issues of Modernity and Male Subjectivity in Chinese Literature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